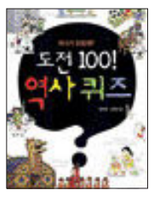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로빈슨 크루소 비밀찾기=고전에 대한 이해와 논술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펴낸 만화논술서 시리즈. 문학수사대의 모험을 위해 열혈 무술청년과 냉철한 부잣집 소년이 한 팀이 되어, 상반된 능력과 캐릭터로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며 범인을 잡는 과정을 그렸다. 〈아이세움·8천500원〉

▲고추 아저씨 발명왕 되다=세상을 바꾼 작은 씨앗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고추농사를 시작으로 발명가 까지 된 농부 이해극의 유쾌한 농사 이야기를 동화로 엮었다. 〈청어람 미디어·7천800원〉

▲검정연필 선생님=동화작가 김리리씨가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갈등과 고민을 포착해 판타지를 가미한 동화집. 가족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수민이, 시험점수가 쑥쑥 올랐으면 하는 바름이, 할머니가 아들타령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의 동화 3편이 실려있다. 〈창비·8천500원〉

▲도전 100! 역사퀴즈=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역사를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퀴즈형식으로 재미있게 설명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총 100개의 역사퀴즈와 퀴즈왕, 퍼즐맞추기 등이 실려 흥미를 준다. 〈주니어 김영사·8천900원〉



▲엄지공주=안데르센의 대표작인 '엄지공주'를 프랑스 작가 다니엘 피쿨리가 열대지방의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캐릭터로 새롭게 쓴 동화. 엄지공주가 왕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하는 원작과 달리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크레용 하우스·1만원〉

'문제 가정'에서도 인재 나온다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고어츨 지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컸다. 아이는 학교에 갔으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교사의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는 화가 나 아이를 자퇴시키고 자기가 직접 가르치겠다고 했다. 지진아로 불릴 수도 있는 이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친 이는 다름 아닌 토머스 에디슨이다.'

'세계적 인물은 어떻게 키워지는가'는 미국 영재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낸 고어츨 부부가 세계적인 인물 600여명을 선정, 그들의 전기와 자서전을 바탕으로 가정환경, 성장배경을 조명한 책이다.

지난 1962년 출간돼 자녀 교육서의 고전으로 평가받은 뒤 기존 400명의 인물에 200명을 새롭게 추가해 출판한 개정판이다.

이 책은 내 아이를 영재로 키우기 보다는 '어떻게 키우느냐'에 관심을 가진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다. 자녀가 충격적인 어린 시절을 겪었다거나 너무나 유별나기 때문에 정규교육보다 가정학교나 대안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다.

세계적 인물 600여명 환경·성장배경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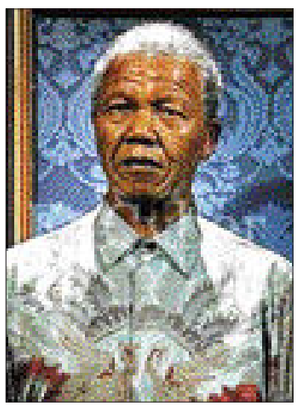
"자녀 재능 살려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

이 책에서 조명한 인물 대부분은 '문제 가정' 출신이다. 남자였는 데도 먼저 죽은 누나를 대신해 여자처럼 자란 라이너 마리아 릴케, 미혼모에게 버림받은 오프라 윈프리, 젊은 시절 반항아였던 넬슨 만델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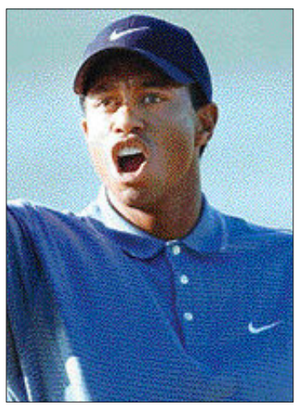
저자들이 찾아낸 부모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녀의 재능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보편적인 지식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보다는, 오히려 특유의 장점, 재능, 목표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도록 자녀를 독려하는 경향이 강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에게는 경기 때마다 동행하며 끊임 없이 조언해주는 열성적인 부모가 있었으며, 리처드 파인만의 아버지는 아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 끝없이 아들을 격려해 세계적인 과학자로 키워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저명인사를 키워낸 부모들의 성향이다. 유명 인사들의 경우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지적이거나 창의적인 성취를 하려는 강렬한 욕구의 소유자였다. 공교육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공부를 중요시했고 진리와 아름다움을 사랑했다.



넬슨 만델라



타이거 우즈

오프라 윈프리

아일랜드의 화가이자 철학자로 활동하던 존 버틀러 예이츠는 유명한 시인인 아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보다 지명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끝에 69세에 뉴욕으로 건너가 새로운 미술 세계를 공부하는 열정의 소유자였다.

저명 인사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었다. 확고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대의명분을 지지하고 자유주의를 신봉했다는 것이다.

소설가 펄벅의 부모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펄벅이 죽음과 인간의 잔인함을 일찍부터 깨우치도록 이끌었다.

저자는 인물들의 다양한 성장배경을 ▲공부와 성취를 중요시한 가정 ▲실패자인 아버지 ▲권위적인 어머니 ▲문제있는 가정 ▲어린 시절 고난을 겪은 아이 등 10가지 유형으로 풀어내고 있다. 〈뜨인돌·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어 문법, 4천만이 알기 쉽게 풀어 써

글쓰기를 위한… 이재성 지음

'딱딱한 문법책은 가라.'

누구나 글을 잘 쓰고 싶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요즘엔 대학에서도 글쓰기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고,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글을 쓰는 사람도 많아 어느 때 보다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만부 이상 판매된 '글쓰기의 전략'의 공동 저자로 10년 넘게 연세대에서 글쓰기를 가르쳐온 이재성 교수가 쓴 '글쓰기를 위한 4천만의 국어책'은 글쓰기의 필수인 문장의 법칙을 알기 쉽게 풀어쓴 말랑말랑한 문법책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몽룡이, 춘향이, 방자, 향단이 등 춘향전의 주인공들이 길라잡이로 나서 독자들을 국어 문법의 세계로 안내한다. 조금은 딱딱한 주제지만 이형진 씨의 그림이 함께 곁들여져 있어 읽는 데 수월하다. 〈들녘·1만 4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도생활 경험 토대로 쓴 추리소설

13번째 사도의… 미셸 브누아 지음

20여년 간의 가톨릭 사제 생활과 5년여의 바티칸 생활을 했던 프랑스 작가가 역사 미스터리 소설을 출간했다.

'13번째 사도의 편지'(전 2권)는 미셸 브누아가 오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해박한 성서 지식과 정확한 고증을 통해 재미를 더한 추리소설. 베스트셀러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를 재미있게 읽었던 독자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저자가 수십년의 수도생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소설은 오래된 콥트어 원고를 해석하다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프랑스 수도원의 안드레이 신부가 바티칸의 비밀조직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시작된다. 동료 닐 신부는 안드레이 신부가 남긴 의문의 쪽지를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풀어나간다. 〈노블마인·각 권 9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김종철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비평집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도 있다니! 이런 경험이 드물어진 것은, 인간의 심성뿐 아니라 문학에서도 정신과 마음의 분업이 병처럼 깊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김종철 비평집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은 그의 첫 평론집 '시와 역사적 상상력'이 나온 지 20년 만에 나온 책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출판 행위로 인한 나무들의 희생을 마음 아파하고 있다.

이처럼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를 자신의 일부로 느끼는 감수성의 회복 없이는 죽음을 향해 치닫는 문명을 치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그의 글 곳곳에 사금파리처럼 박혀 있다.

그는 전지구적인 생태 위기에 주목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변화나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환경위기의 내면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격의 쇄신과 근원적 감각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그가 욕망의 문제에 유난히 관심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보다 많이가 아니라 보다 다르게 욕망하도록 교육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가 문제삼는 것은 개인의 해탈이 아니라 인간을 일률적으로 조종하고 교육하는 왜곡된 욕망의 구조 자체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다

이러한 사회 역사적 토대로부터 자유로운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그의 비평은 양자 사이의 창조적 긴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그를 단순한 환경운동가나 문학비평가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전인성에 있다.

물론 그의 근본주의적인 태도의 현실성을 되묻거나 지나친 이상주의자로 보는 시선이 없지 않다. 그러나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희생'에서 이미 죽었다고 보이는 나무에 매일 물을 주는 장면이 시사하듯이, 우리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야말로 내일의 현실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주의자에게는 현실을 바꿀 구체적인 처방이나 전략이 무어냐고 다그치기 전에 회의와 절망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열어주는 일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가 펴내고 있는 '녹색평론'을 읽어본 독자라면 누구나 "모든 진정한 시인은 본질적으로 가장 심오한 생태론자"라는 말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시작품'보다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실감을 가지고 공생적 문화를 만드는 데 헌신하는 '시적 인간'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소년시절에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결국 남의 시를 읽고 해석하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된 그는 자신 속에 오랫동안 동거해온 '생태적 인간'을 통해 수많은 시를 써온 셈이다.

정작 시를 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자연과 언어를 섬길 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을 읽으면서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지만, 때로 얼굴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시적 인간'의 지극함에는 턱없이 함량미달인 내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비쳐, 그 거울에서 눈을 떼고 창 밖을 몇 번씩 바라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나 희 덕
〈시인·조선대 교수〉